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3. 19.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좋으신 하나님”

다 같 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2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3절 한 없는 축복을 우리게 주시는

후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 도 자

성경 봉독

창세기 15장 6~11, 17~18절

다 같 이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7.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사람들 간에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 놓고 서로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구두로 혹은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בְּרִית)'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고대 국가에서 국가 간에 행하는 조약이나 동맹, 혹은 결혼식 때 행하는 남녀 간의 서약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원어상으로 볼 때 '언약'이란 단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가벼운 약속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언약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언약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약속은 양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언약의 내용 중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즉, 조건이 붙어 있어 때로 인간이 그 언약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 언약이 있게 된 근본적 동기를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을까요?

먼저,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대등하게 약속할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단지 흙으로 빚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대등한 입장에서 약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하게 약속할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 있는 인간은 감히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따라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식을 행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식을 행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둘로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되 피, 곧 죽음의 맹세로 언약하심을 뜻합니다. 즉, 언약은 맺을 때에 피로써 엄숙하게 맺었으니,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언약의 제물처럼 그 대가로 피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언약하심으로써 그 언약하신 바에 대해 맹세코 실행하시겠다는 사실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 성경은 '피의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언약하신 바에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하여 '소금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써 새 언약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피, 곧 죽음으로 언약하셨음을 생각할 때, 언약의 엄숙함에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언약을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경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때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흉수 심판 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하여 언약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자신의 몸과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수는 많으나 그 목적은 모두 다 한 분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수천 년을 두고 여러 경우에 다른 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것은 한결같이 우리 구원을 위해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통일성 내지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정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한 번 언약하신 바에 대해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 흔들릴 때, 신앙하는 바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을 때, 피로써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꼭 불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눔

다 같 이

1.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었나요?
3.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중 보 기 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 같 이

1.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2.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있도록
3.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4. 많은 사역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5.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기억하며, 모든 삶의 기준을 오직 주님께 두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과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